

훗케지 절(法華寺, 법화사)

훗케지 절은 일본의 불교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묘 황후(701~760년)가 창건한 비구니절입니다. 과거 이 장소에는 고묘 황후의 부친이자, 유력 귀족이었던 후지와라노 후히토(659~720년)의 저택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후 고묘 황후의 남편인 쇼무 천황(701~756년)이 도다이지 절(東大寺)을 일본 곳곳에 배치된 관립 사찰인 고쿠분지 절(國分寺)을 총괄하는 소고쿠분지 절(總國分寺)로 정하고, 훗케지 절을 소고쿠분지(總國分尼寺) 비구니절로 지정했습니다. 황족이나 귀족의 딸들은 비구니가 되어 이 훗케지 절에 들어갔습니다.

‘훗케지 절’을 한자로 쓰면 법도의 꽃이라는 뜻의 ‘法華寺(법화사)’로 고묘 황후는 비구니들에게 꽃꽂이를 실천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훗케지 고류라는 꽃꽂이 학파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고묘 황후는 사찰의 비구니들뿐만 아니라,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자신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묘 황후는 진료소를 설립하고 고아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황후는 절 경내에 ‘가라후로’라는 옥실을 만들어 병으로 고통받는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때를 씻어 냈다고 합니다. 가라후로는 1766년에 재건되어 지금도 경내에 서 있습니다.

훗케지 절의 다른 볼거리로는 십일면관음상과 유마거사상(모두 국보), 제비붓꽃으로 유명한 정원(국가지정사적), 17세기에 지어진 본당, 난다이몬 문(南大門, 남대문), 종루당 등이 있습니다.